

書院建築의 主山과 案山の 風水의 特徵에 關한 研究

박 정 해*

(한양대 대학원 박사과정)

한 동 수

(한양대 건축학부 부교수)

주제어 : 서원, 풍수, 주산, 안산, 九星, 士林, 문필봉

1. 서론

朝鮮의 儒學은 朱子學이라고 하여도 크게 어긋나지 않을 만큼 조선의 儒學者들은 朱子의 學問에 심취해 있었고 깊은 영향을 받았다. 더구나 朱子가 상당한 풍수역량을 갖춘 학자로서 곳곳에서 풍수적인 요소를 드러내고 있었고 이와 같은 영향의 결과로 나타나는 것이 바로 서원 건축인데 朱子의 武夷九曲과 白鹿洞書院에서 비롯되었다. 특히 그에 의해 쓰여진 『山陵議狀』¹⁾은 宮中에서 조차 풍수를 이야기 할 때 자주 인용하였기 때문에 더욱 확신을 가질만한 이유가 된다. 따라서 조선의 유학자들에게 風水는 아주 중요한 연구대상이 아니었다 할지라도 그들에게 많은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었고 터 잡기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고려 대상이었다.

서원 건축은 周世鵬에 의해 건립된 白雲洞書院이 始初로서 宿水寺터를 활용하게 되는 것은 吉地를 빠른 시간에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民家와는 일정한 거리를 확보하고 있고 아름다운 자연 풍경을 덤으로 얻게 되는 효과도 아울러 가지게 된다. 또한, 風水에서 중요시하는 陰陽의 調和²⁾라는 命題를 동시에 해결하고 있다는 것은 참으로 탁월한 선택이었다고 할 것이다.

모든 건축물은 건축할 때 어떠한 터를 정할 것인가가 가장 중요한 변수를 차지하게 마련이다. 풍수가에 의해 결정된 地形條件은 건축물의 性格과 軸, 坐向 그리고 건축물의 配置 등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때문에 풍수에 따른 지형조건을 결정하는 주산과 안산의 형상은 중요한 요소로서 이런 형상에 의해 터의 성격도 결정되는 구조이다. 또한, 주산과 안산의 형상에 의한 지형의 조건은 절대적인

* 교신저자, 이메일: azzy777@hanmail.net

1) 宋代 황제 孝宗이 죽은 지 6년이 지나도록 당시에 유행하던 五音姓利라는 理氣論에 얽매어 능지를 구하지 못하자 理氣論 보다는 形勢論에 근거한 능지 선정이 되어야 한다는 뜻을 담아 宋 寧宗에게 올린 글이다. 내용을 살펴보면 상당한 풍수실력을 갖췄음을 알 수 있고 조선시대 이 『山陵議狀』은 중요한 인용근거로 등장하게 된다.

2) 風水에서는 山은 움직이지 않으니 陰이라고 하고 물은 움직이기 때문에 陽이라 하는데, 陰陽이 서로 화합할 때 비로소 生氣가 생겨 吉地가 형성 된다고 여긴다. 따라서 吉地는 산과 물이 서로 환포하는 地形이라야 한다.

영향력을 가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중요한 연구대상이며 형상에 따른 특징과 영향에 대한 검토도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한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辛未存置 47개 서원중에서 南韓에 위치한 21개 서원³⁾을 중심으로 터를 상징하는 主山과 案山の 형상을 현장답사와 문헌고찰 등을 통해 다음과 같은 부분에 초점을 맞추어 전개해보고자 한다.

첫째, 당시 유학자들의 주산과 안산에 대한 형상의 선호도와 함께 내면적인 의도를 살펴본다.

둘째, 主山과 案山の 형상을 陰陽으로 구분하고 서원건축 공간구성에 어떻게 적용되었는지를 아울러 고찰한다.

셋째, 지형조건이 다른 영남학과와 기호학과의 서원에 있어서 건축물입지의 차이에 대해서도 살펴본다.

3) 辛未存置 47개 書院중에서 南韓에 위치한 36개중에서 祠宇와 원래 장소를 근래에 이전한 14개소를 제외한 21개의 서원으로 한정하였다. 구체적으로 서원을 살펴보면,

지역	서원명	주배향자
경기도	용연서원	이덕형
	파산서원	성수침
	덕봉서원	오두인
	심곡서원	조광조
강원도	우저서원	조헌
	창절서원	사육신
충청도	충렬서원	홍명구
	돈암서원	김장생
전라도	노강서원	윤항
	무성서원	최치원
	필암서원	김인후
경상도	도산서원	이황
	소수서원	안향
	옥산서원	이언적
	서악서원	설총
	도동서원	김굉필
	옥동서원	황희
	홍암서원	송준길
	남계서원	정여창
	병산서원	유성룡
금오서원	길재	

2. 主山과 案山の 形狀論

『發微論』에서는 “무릇 千里 行龍한 龍도 단지 한 자리만을 만들 뿐”이라고 하였다. 그만큼 穴을 맺기 어렵다는 뜻이며 穴을 찾기도 어렵다는 뜻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 따라서 穴을 찾기 위한 다양한 방법들이 風水書에 등장하는데 그중에서 主山尋穴法과 案山尋穴法이 가장 핵심적인 尋穴法이라 할 수 있다. 主山尋穴法은 잘생긴 主山을 바탕으로 穴을 찾는 방법이고 案山尋穴法은 主山과 대비되는 案山을 찾아서 穴을 찾는 방법이다. 때문에 主山과 案山の 形狀에 대한 파악은 가장 우선시 되어야만 한다. 그리고 풍수이론의 핵심을 차지하는 形勢論의 관점에서도 主山과 案山の 형상은 굉장히 중요시하여 『靑烏經』에서는 “귀한 기운이 서로 돕는 자리란 본래 근원으로부터 이탈하지 않고 앞뒤로 구역을 호위하며 主山과 案山이 각각 있는 곳이다.”⁴⁾라고 하여 주산과 안산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었다. 또한, 楊筠松은 『靑囊輿旨』에서 “먼저 하늘에 理致는 氣가 있으면 形이 있고 形이 氣를 이룬다.”⁵⁾라고 하여 氣와 形은 별개가 아닌 氣에 따라 形이 결정되고 다시 形이 氣를 이룬다고 보고 있다. 朱子도 『山陵議狀』에서 形勢를 살핀 후에 坐向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하여 形勢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반드시 먼저 땅의 지세가 굳센지 약한지의 강약을 논해야 하는 것이고, 風氣의 聚散을 논하고 水土의 깊고 얕음을 논하며, 穴의 치우침과 바름을 논하고, 力量의 온전함과 부족함을 논한 후에 비교하여 그 땅의 美惡인 吉凶을 헤아

4) 최창조 역주, 『청오경·금낭경』, 민음사, 27-28쪽, 1993 : 貴氣相資 本原不脫 前後區衡 有主有客

5) 楊筠松, 『靑囊輿旨』, 北京, 華齡出版社, 322쪽, 2009 : 先天之理 有氣斯有形 形以氣成

리는 것입니다. 나라를 다스리는 政事에 실제로 國音說이 있다고 하더라도 역시 반드시 위에서 말씀드린 다섯 가지 형세가 뛰어난 길지를 얻은 후에 그러한 술법을 얻음이 가당한 것입니다. (중략) 신은 본래 유생이니, 술수에는 환히 알지 못합니다.⁶⁾

形勢에 충실하여야 한다는 朱子의 풍수관은 조선유학자들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이것은 터의 선정은 신중해야 하고 터의 기운을 좌우하는 가장 핵심적인 요소가 되는 주산과 안산의 형상은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풍수에서 자연의 조화로움을 살피는 일은 산의 모양에서 시작이 된다⁷⁾고 하였는데 여러 풍수서 중에서도 산의 형상을 구체적으로 논하고 있는 胡舜申의 『地理新法』과 楊筠松의 『撼龍經』 그리고 徐善繼, 徐善述 형제의 『地理人子須知』을 살펴본다. 胡舜申의 『地理新法』과 楊筠松의 『撼龍經』은 산의 형상에 九星⁸⁾을 끌어들이어 논하고 있으며, 『地理人子須知』는 五行⁹⁾으로 구분하여 설명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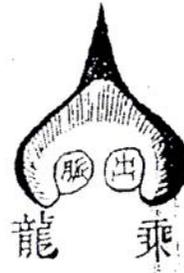
6) 朱熹, 魯炳漢 譯 『山陵議狀』, 안암문화사, 530-531쪽, 2006 : 必先論其主勢之強弱, 風氣之聚散, 水土之淺深, 穴道之偏正, 力量之全否, 然後可以較, 其地之美惡. 政使實有國音之說, 亦必先此五者以得形勝之地, 然後其術可得而推.臣本儒生, 不曉術數

7) 최창조, 『땅의 논리 인간의 논리』, 민음사, 166쪽, 1992

8) 九星은 貪狼星(木), 巨文星(土), 祿存星(土), 文曲星(水), 廉貞星(火), 武曲星(金), 破軍星(金)과 左輔星(土)과 右弼星(金)을 합한 아홉 개의 별을 山의 形象에 대입하여 吉凶禍福까지 별의 특성을 통해 논하고 있다.

9) 山의 形象을 木·火·土·金·水로 分類하여 形狀과 發福에 대해서 논하고 있다.

10) 자료출처: 楊筠松, 『撼龍經·疑龍經比注校補』, 巴蜀善成堂新録, 光緒18년, 177-178쪽



<그림 1> 狼星-木¹⁰⁾



<그림 2> 탐랑성(文筆峰) 강원도 영월

貪狼에 대해 『地理新法』과 『撼龍經』에서는,

貪狼은 九星의 우두머리 神으로 옛말에 生氣라고 불렀으며, 또한 生龍이라고도 불렀다. 聰明과 文筆, 人口, 官職과 함께 財와 富, 그리고 孝와 義를 관장한다.¹¹⁾

貪狼은 마치 대나무 순과 같이 뾰족하게 솟은 봉우리에 만약 기울어진 나뭇가지는 한 가지도 같지 않으며, 斜枝는 結의 山頂이 破面이 되고 뾰족해서 다리가 있으면 乘龍이라 한다. 脚下에서 橫으로 당기면 帶劍이 되어 文武功名이 이에 따라 대별된다. 橫으로 보며 頂이고 측으로 보면 峰이니 이것이 貪狼이 출진한 용이다.¹²⁾

11) 胡舜申, 김두규 역, 『地理新法』 卷上, 貪狼論. 비봉출판사, 75쪽, 2004 : 貪狼爲九星魁神 古謂之生氣又謂之生龍主聰明文筆人口官職之事亦主財富孝義

24 논문

『地理新法』과 『撼龍經』에서는 貪狼을 아주 길한 기운을 가진 산의 형상으로 분류하고 있으며 산의 형상에 대해 뽕족하게 우뚝 솟아오른 형상이라 묘사하고 있다. 오행으로 분류하면 木에 해당하는데 『地理人子須知』에서는,

木의 體는 곧고 모나지 않으며 성품은 순하고 가지가 퍼진다.¹²⁾ 文星이니 주는 文章, 科名, 聲譽, 貴顯이다.¹⁴⁾

木星體가 주로 文章과 名譽와 貴를 관장한다고 하였으니 대의명분과 학문에 대한 열정이 강했던 士林들에게 있어서는 書院의 主山 혹은 案山의 형상으로 적격이라 판단하였을 것이다.



<그림 3> 巨文星-木¹⁵⁾

巨門에 대해 『地理新法』과 『撼龍經』에서는,

대개 巨門은 天驕라고 부르는데 帝王의 주인 자리에 위치한다. 輔弼은 즉 좌측과 우측에서 보좌한다.¹⁶⁾



<그림 4> 巨文星-대전 계룡대

巨門은 尊星으로 性品이 端正하고 겨우 祖宗山을 떠나서 높이 쳐들리니, 星峰이 스스로 더불어 여러 星峰을 不尖하고 不圓하니 그 體가 方正하다.¹⁷⁾

길한 기운을 가진 형상의 봉우리로 주변의 도움과 보좌를 받는 위치에 있음을 강조하면서 굉장히 단정하고 方正한 형상으로 묘사하고 있다. 오행으로는 土에 해당하는데, 土星體에 대해서 『地理人子須知』에서는,

土의 體는 모나지만 正하고 성품은 靜하고 더디다.¹⁸⁾ 尊星이니 주는 極品王侯 勳業崇高 慶澤綿衍 五福具備한다.¹⁹⁾

토성체가 바른 형상이라면 極히 貴한 형상으로 상당히 선호할 만한 요소가 많음을 알 수 있다.

12) 楊均松, 남궁승 역, 『撼龍經』, 대훈닷컴, 57쪽, 2009 : 貪狼頓起笄生峰 若是斜枝便不同 斜枝側頂爲破面 尖而有脚號乘龍 脚下橫拖爲帶劍 文武功名從此辨 橫看是頂側是峰 此是貪狼出鎮龍

13) 徐善繼 徐善述 「地理人子須知」, 臺北 武陵出版社, 1971년, 133쪽 : 木之體直而不方木之性順而條暢

14) 徐善繼 徐善述 위의 책, 130쪽 : 文星 主文章科名聲譽貴顯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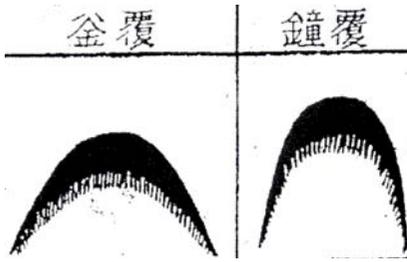
15) 노병한, 『거림명당풍수학』 안암문화사, 210쪽, 2005년

16) 胡舜申, 김두규 역, 앞의 책, 卷上, 右弼巨門左輔論. 100-101쪽 : 故八五經云 辰戌丑未 五君之位 乾坤艮巽 五君之輔 乙辛丁癸 五君之弼

17) 楊均松, 남궁승 역, 앞의 책, 96쪽 : 巨門尊星性端莊 纔離祖宗即高仰 星峰自與衆星別 不尖不圓其體方.

18) 徐善繼 徐善述, 앞의 책, 133쪽 : 土之體方凝而正土之性鎮靜而遲

19) 徐善繼 徐善述, 앞의 책, 130쪽 : 尊星 主極品王侯分茅胙土勳業崇高慶澤綿衍五福金運祚永



<그림 5> 武曲星-金

『地理新法』과 『撼龍經』에서 武曲은,

무릇 九星 가운데 貪狼은 주로 貴를 관장하며 生氣를 얻어 맑다. 武曲은 주로 富를 주관하며 旺氣를 얻어 旺盛하다.²⁰⁾



<그림 6> 武曲星-경북 경주시

武曲의 星峰은 鐘과 釜이니.... 武曲이 端巖하면 富貴가 있는 곳이니 輔弼은 龍을 따라 厚薄으로 취한다. 眞龍이 行龍해서 五六程이면 떨어질 때에 임해서 剝換되어 輔星이니 북과 같고 도장과 같으며 밝은 달과 같으니 三三 兩兩이 당겨서 衍행한다.²¹⁾

20) 胡舜中, 김두규 역, 앞의 책, 卷上, 武曲論, 95쪽 : 九星 大率 貪狼主貴 以得生氣而清也. 武曲主富 以得旺氣而盛也

21) 楊均松, 남궁승 역, 앞의 책, 222쪽
武曲星峰覆鐘釜...武曲端巖富貴罕 輔弼隨龍厚薄取 眞龍若行五六程 臨落之時剝換輔星 如梭如印如皎月 三三兩兩牽聯行

武曲星의 形狀을 극찬하고 있는데, 五行으로는 金에 해당한다. 『地理人子須知』에서 金星體에 대해서,

金의 體는 둥글고 뾰족하지 않으며 金의 성품은 고요하며 동요하지 않는다.²²⁾ 官星이니 文章, 顯達, 忠正, 貞然이다.²³⁾

이와 같이 土는 富와 함께 官星을 담당한다.

程子の 葬說에는 “터를 잡는 다는 것은 그 땅의 좋고 나쁨을 정하는 것이지, 陰陽家들이 말하는 禍福을 추정하는 것이 아니다.” 라고 하였는데, 朱子 뿐만 아니라 조선조 士大夫 유학자들이 暗誦하였던 글이다.²⁴⁾ 이와 같이 조선의 유학자들도 풍수적 관점의 길지를 찾고자 하였고 구체적인 이론을 바탕으로 주산과 안산의 형상에 대해서 살펴보고 영향에 대한 점점을 통해서 터 잡기를 하게 된다.

『朝鮮王朝實錄』에 따르면, “天文·地理·醫藥·卜筮는 모두 나라에서 폐할 수 없는 일이며, 또 儒者의 직분 안의 일임은 진실로 최호원의 아뢰 바와 같습니다.”²⁵⁾라고 하여 상당부분 인정하고 있었다. 따라서 서원건축에 있어서도 이러한 터 잡기는 예외가 아니었으며, 공간구성에는 陰陽五行과 함께 『周易』과 『太極圖說』의 사상을 수용하게 된다. 이러한 정황으로 볼 때 서원 터의 선정은 풍수적인 논리를 수용하면서 공간구성은 성리학적인 바탕에 근본을 두고 있었다.

22) 徐善繼 徐善述, 앞의 책, 133쪽 : 金之體回而不尖性靜而不動

23) 徐善繼 徐善述, 앞의 책, 130쪽 : 官星 主文章顯達忠正貞烈

24) 인터넷사이트 「김두규의 풍수이야기」, 고전강독

25) 성종 174권, 16년(1485 을사 / 명 성화(成化) 21년) 1월 15일(무술) 4번째기사 : “天文、地理、醫藥、卜筮、皆國家不可廢之事, 亦儒者分內事, 誠如願元所陳矣。

3. 主山과 案山の 形狀에 따른 空 間構成 原理 分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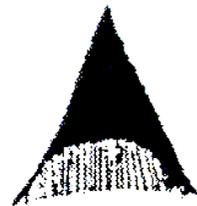
李重煥은 『擇里志』에서 “주산이 수려하고 단정하며 청명하고 아담한 것이 최고다”²⁶⁾ 라고 하였고, 董仲舒의 『春秋繁露』에서는 “대개 玄武란 모양이 가장 엄하고 위엄이 있는 것”²⁷⁾이라 하였으니, 九星 중에서도 특히 아름다운 세 가지 형상²⁸⁾을 서원 터를 잡을 때 가장 고려하였을 것은 자명하다. 실제로 21개 서원의 주산과 안산의 형상을 통해서 풍수이론이 실제 적용된 정도를 살필 수 있고 나름의 공통점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먼저, 주산의 형상이 三吉星 중에서도 武曲 金星體의 형상을 하고 있는 서원을 살펴보면, 21개 서원중에서 陶山書院과 興巖書院 그리고 藍溪書院, 坡山書院을 제외 한 17개의 서원이 武曲 金星體의 형상을 하고 있다. 나머지 네 개 서원중에서 興巖書院 이 貪狼 木星體의 형상을 하고 있으며, 陶山書院과 坡山書院과 藍溪書院이 巨門 土星體의 형상을 하고 있다. 그에 비해서 案山은 主山에 비해서 보다 다양한 형태를 하고 있다. 먼저 貪狼 木星體의 案山을 가진 서원으로는 용연서원과 덕봉서원, 심곡서원, 창절서원, 돈암서원, 도산서원, 병산서원, 옥산서원, 도동서원, 옥동서원, 서악서원, 금오서원, 남계서원 등 13개 서원이 해당되고, 武曲 金星體의 案山을 가진 서원으로는, 파산서원과 충렬서원, 무성서원, 노강서원, 소수서원, 홍암서원 등 6개 서원이 있다. 그 외에 巨門 土星體의 案山을 가진 서원으로는 우저서원과 필암서원 2개만이 있다.

26) 이중환, 이익성 옮김, 『택리지』, 을유문화사, 137쪽, 2008

27) 『春秋繁露』 「服制像」 蓋玄武者 貌之最嚴有威者也

28) 三吉星이라 한다. 즉 貪狼星과 巨文星, 武曲星을 말한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主山으로 武曲 金星體가 압도적으로 選好되고 있는데 『靑鳥經』에서는 武曲星에 대해서 “큰 부자가 되는 터는 등그스럼 한 봉우리가 금괴처럼 생긴 것으로 재물이 몰려들어움이 마치 냇물이 흘러 들어옴과 같다.”²⁹⁾ 라고 하여 무곡성이 재물과 관련성이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이것은 푸근한 형상으로 인한 아늑한 空間의 형성과 함께, 경제적인 안정을 바탕으로 학문에 열중하고자 하였던 유학자들의 바람이 반영된 결과가 아닐까 생각한다. 반면에 案山으로는 貪狼 木星體가 選好되고 있으며, 그 중에서도 산의 꼭대기가 뾰족한 文筆峰이 더욱 더 選好 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것은 학문을 探究하는 유학자들에게 있어 文章과 學問을 상징하는 붓의 형상인 文筆峰을 選好하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결과라 생각된다.



<그림 7> 文筆峰³⁰⁾

文筆峰에 대해서 『靑鳥經』에서는 “官貴를 얻을 터는 문필봉이 융성하게 서있고 魚袋峰이 쌍으로 잇닿아 庚金의 방위에 있어야 한다”³¹⁾ 라고 하여 文筆峰과 함께 御袋峰이 쌍으로 있어야 하고 방위도 서쪽이어야 한다고 하고 있다. 즉 방위의 중요성도 함께 논하고 있다.

29) 최창조 역주, 앞의 책, 39-40쪽
大富之地 圓峰金櫃 具寶杏來 如川之至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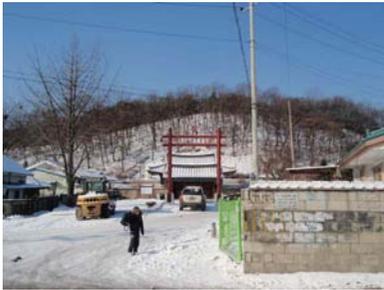
30) 자료출처: 楊筠松, 앞의 책, 177쪽

31) 최창조 역주, 앞의 책, 38쪽 : 官貴之地 文筆插耳 魚袋雙聯 庚金之位

터 잡기에 있어서 건축주의 생각과 선호도가 반영되는 것은 어찌면 당연한 결과이다. 서원건축에 있어서 主山은 압도적으로 武曲 金星體를 선호하고 있으며 案山으로는 貪狼 木星體 중에서도 유독 文筆峰을 선호하게 되는 배경에도 士林들의 選好度가 잘 反映된 결과이다.



<그림 11> 덕봉서원 안산



<그림 8> 용연서원의 주산



<그림 12> 옥산서원의 주산



<그림 9> 용연서원의 안산



<그림 13> 옥산서원의 안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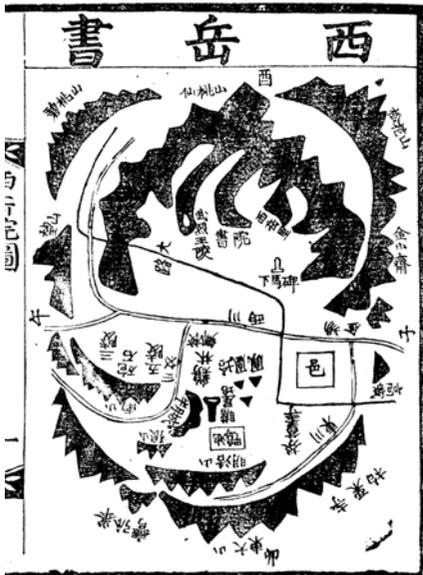
<그림 10> 덕봉서원의 주산



<그림 14> 무성서원의 주산

[표 1] 各 書院의 主·案山 比較表 *坐向은 4층 地盤正針으로 測定

地域	書院 名	主山の 形상	案山の 形상	坐 向	비고
京畿	龍淵書院	武曲 金星體	貪狼 木星體(文筆峰)	辛坐乙向	
	坡山書院	巨門 土星體	武曲 金星體	癸坐丁向	
	牛渚書院	武曲 金星體	巨門 土星體	申坐寅向	
	德峯書院	武曲 金星體	貪狼 木星體(文筆峰)	乾坐巽向	
	深谷書院	武曲 金星體	貪狼 木星體	卯坐酉向	
江原	彰節書院	武曲 金星體	貪狼 木星體(文筆峰)	寅坐申向	
	忠烈書院	武曲 金星體	武曲 金星體	乾坐巽向	
忠淸	遯巖書院	武曲 金星體	貪狼 木星體(文筆峰)	酉坐卯向	
	魯岡書院	武曲 金星體	武曲 金星體	子坐午向	
全羅	武城書院	武曲 金星體	武曲 金星體	亥坐巳向	
	筆巖書院	武曲 金星體	巨門 土星體	子坐午向	
慶尙	紹修書院	武曲 金星體	武曲 金星體	癸坐丁向	
	陶山書院	巨門 土星體	貪狼 木星體(文筆峰)	癸坐丁向	
	屏山書院	武曲 金星體	貪狼 木星體(文筆峰)	壬坐丙向	
	西岳書院	武曲 金星體	貪狼 木星體(文筆峰)	酉坐卯向	
	玉山書院	武曲 金星體	貪狼 木星體(文筆峰)	卯坐酉向	
	道東書院	武曲 金星體	貪狼 木星體(文筆峰)	坤坐艮向	
	錦烏書院	武曲 金星體	貪狼 木星體(文筆峰)	壬坐丙向	
	興巖書院	貪狼 木星體	武曲 金星體	戊坐辰向	
	玉洞書院	武曲 金星體	貪狼 木星體(文筆峰)	申坐寅向	
藍溪書院	巨門 土星體	貪狼 木星體(文筆峰)	甲坐庚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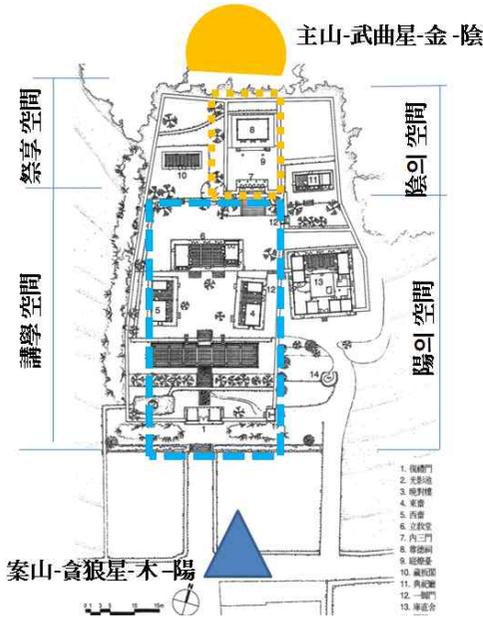
<그림 15> 西岳書院 形局圖
(출처: 西岳書院誌)

서원건축물은 主山과 案山의 형세적 특징에 충실한 터 잡기와 함께 坐向의 선택 그리고 空間의 구성 원리를 적용하게 된다. 이것은 官廳과 가깝게 위치하여야만 했던 鄉校建築과 비교될 수 있는 요소라 할 수 있다. 서원건축은 위치적인 制限을 받지 않고 풍수적인 길지를 선택할 수 있었다면, 향교건축의 터 잡기는 여러 제약조건이 존재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勉學을 위한 주변 환경조건도 서원보다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터가 가지는 풍수적인 조건도 열악했다고 판단된다.

그렇다면 왜 書院은 유독 武曲星의 主山과 文筆峰의 案山을 선호하였는지를 살펴보는 것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된다.

主山은 穴場과 바로 연결되어 穴의 氣運과 穴의 特徵을 左右할 위치에 있다. 즉 主山의

점을 相殺하고 補完하는 기능을 絶妙하게 조화시키고 있다. 따라서 陰의 성격인 祠堂을 後面에 配置하고 活動성이 강한 學問의 空間을 前面에 배치한 것은 이와 같은 陰陽의 원리와 정확히 일치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그림 17> 주산과 안산의 형상과 공간구성원리 대비도

(출처: 이상해, 「서원」의 병산서원 배치도에 공간구성원리 추가 작성)

또한, 前面의 建築物은 樓閣등을 건설하여 案山을 향한 視野가 방해받지 않도록 기둥으로만 구성된 완전 개방형의 건축물을 배치하고 있다. 특히 병산서원은 앞쪽에 위치한 험악한 병산을 가리기 위해 晚對樓를 건설하였다고 하였으나, <그림18>에서 보는 것처럼 오히려 적극적으로 안산을 끌어들이는 공간구성을 하고 있다. 자칫 벽체로 가려질 우려를 말끔히 해소하여 서원의 指向點을 상징하는 文筆峰이 視野에서 가려지지 않도록 하는 細心한 배려가 반영된 결과라 생각된다.



<그림 18> 屏山書院의 晚對樓

『林園經濟志』 「相宅志」에서는,

평탄한 땅이 일망무제로 펼쳐져 있다 하더라도 용이 굽이쳐 내려와 혈이 맺혀진 장소가 다른 어떠한 지형보다 높게 솟아야 진짜라고 할 수 있다. 평지에서 한 걸 같이 평탄하여 높낮이의 구별이 없는 지형이나 혈세가 다시 낮게 가라앉은 지형은 제대로 된 터가 아니다. 여기서 이른바 높다고 하는 것은 단지 한자 남짓이나 몇 치라도 더 높아야 높다고 할 수 있다. - 증보산림경제32)

따라서 평지에 입지한 서원들은 入首龍이 들어와 약간 높은 지형을 이루는 곳에 가장 대표적인 건축물을 입지시키기 마련이다. 이러한 이유로 평지에 위치한 서원들은 대부분 入首龍의 영향을 받는 祭享空間에 穴을 맺는 경우가 많다. 반면에 경사지에 위치한 서원들은 龍盡處가 講學空間에 해당되는 경우가 상대적으로 많다.

지역적으로 살펴보면 경기와 충청 호남지방에 위치한 畿湖學派의 서원들은 비교적 평지

32) 서유구, 안대회 엮어 옮김, 『산수 간에 집을 짓고』, 돌베개, 108쪽, 2006

『林園經濟志』 「相宅志」, 保景文化社, 452쪽, 1983 : 平地陽基 平衍之地 一望無際 亦必以龍之來 歷穴之結作處 高於衆地 而後爲眞 如平地中一坦 無高下之分 或 穴勢又復低況 則非矣所 謂高者 亦只尺許 或 教寸皆謂之高.

에 입지하는 경향이 많은 반면에 영남지역에 위치한 嶺南學派의 서원들은 주로 龍脈 위에 입지하여 약간의 경사를 이루고 있다. 이것은 경기와 충청 그리고 호남지역의 서원들은 주로 祭享空間이 穴處에 위치하게 되고, 경사지에 입지한 영남지역의 서원들은 주로 講學空間이 穴處에 위치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배경에는 지형적인 특성과 함께 여러 정치적인 상황이 맞물려 있다고 생각된다.

먼저 地形的인 특성으로 경기도와 충청 그리고 호남지역의 山勢가 영남지역에 비해서 비교적 완만하고 부드러운 地形을 가졌다는 이유가 될 수도 있다. 반면에 嶺南學派들의 서원은 비교적 지세가 강한 이유로 인하여 江邊이라든지 溪谷 근처에 위치하여 상당히 아름다운 風光을 자랑하는 곳에 입지하는 경향을 보인다. 이것은 退溪의 서원 立地論에 보다 충실하게 자리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마을과의 거리도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주로 畿湖學派들의 서원은 마을과 혼합되어 있는 경향을 보인 반면에 嶺南學派의 서원은 마을과 일정한 거리를 두고 분리하여 조성하는 경향을 보인다.

5. 結 論

書院 건축물은 風水의인 관점에서 吉地를 찾기 위한 다양한 노력의 결과물이다. 풍수에서는 陰陽의 調和와 함께 主山과 案山 그리고 周邊砂格들의 조화를 중요시 한다. 그중에서도 특히 主山과 案山을 중요하게 여기는데 風水學의 最高 經典인 『靑鳥經』과 胡舜申의 『地理新法』 그리고 楊筠松의 『撼龍經』, 徐善繼, 徐善述 형제에 의해 저술 된 『地理人子須知』 등에서는 산의 형세에 대하여 다양하게 기술하고 있다. 胡舜申의 『地理新法』과 楊筠

松의 『撼龍經』은 산의 형상에 九星³³⁾을 끌어 들여 논하고 있으며, 『地理人子須知』는 五行³⁴⁾으로 구분하여 설명하고 있다. 특히 理氣論의 一種인 『地理新法』도 「形勢論」에서 형세의 중요성을 인정하고 形勢를 바탕으로 하여 『地理新法』의 이론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다. 그리고 풍수이론의 핵심을 차지하는 形勢論의 관점에서도 主山과 案山은 가장 중요한 풍수요소이며 그 형상이 가장 핵심이라 할 것이다. 主山과 案山の 빼어난 세 가지 형상을 三吉星이라 하는데, 그 중에서 主山으로는 武曲 金星體의 형상을 선호하고, 案山은 貪狼 木星體를 선호하는 경향을 보이는데, 특히 文筆峰에 대한 사랑은 대단하다.

主山은 穴場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內面的인 特徵을 가진다면 外部에 노출되어 모두가 함께 享有하는 案山은 指向點을 對外的으로 誇示하는 성향을 가진다. 主山은 서원을 건설한 士林들의 내면적인 바람을 나타내고 있다면, 案山은 그들의 大義名分을 의미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이것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오랜 세월 정치무대에서 배제된 채 자연과 벗삼으며 학문 탐구에만 몰두해야만 했던 士林들에게 있어 安定的이고 餘裕로운 활동의 舞臺는 절실하였을 것이다. 때문에 그들에게 있어 서원은 절대적으로 풍요로움을 바탕으로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武曲星의 主山을 選好할 수밖에 없었다. 반면에 大義名分도 절대로 무시할 수 없는 중요 덕목이었던 士林들에게 있어 학문탐구는 가장 명분 있는 包裝이었다. 또

33) 九星은 貪狼星(木), 巨文星(土), 祿存星(土), 文曲星(水), 廉貞星(火), 武曲星(金), 破軍星(金)과 左輔星(土)과 右弼星(金)을 합한 아홉 개의 별을 山의 形象에 대입하여 논하고 있으며 吉凶禍福까지 별의 특성을 통해 논하고 있다.

34) 山의 形象을 木·火·土·金·水로 分類하여 形象과 發福에 대해서 논하고 있다.

한 학문 탐구를 통한 出仕는 포기할 수 없는 매력이기도 하였다. 때문에 大義名分에 충실하면서도 그들의 지향점인 학문적인 성취를 상징하는 文筆峰은 단연 선호될 수밖에 없었다. 즉 내부적으로는 그들의 활동 무대의 확보에 따라 굉장히 만족해하고 안정을 지향하면서도 대외적으로는 학문 探究를 표방하여야 했던 당시의 士林들의 생각과 일치하고 있다. 또한, 主山과 案山の 形狀 陰陽은 書院空間의 陰陽論理와 일치하는 경향을 보인다.

지역적으로 평지가 많은 경기 충청 전라지역의 畿湖學派 서원과 山地가 많은 영남지역의 嶺南學派 서원은 풍수적인 고려와 터 선택에 있어서 차이게 보이게 되며 각자의 특성에 합당한 터 잡기와 건축물을 배치하게 된다.

性理學에서는 인간을 포함한 모든 만물을 形而上의 理와 形而下의 氣의 二元的 複合體로 파악하는데 理는 物性을 결정하고 氣는 物形을 결정한다³⁵⁾는 원리에도 부합하고 있다. 자연의 형상에 철저히 동화되는 모습을 보이는 서원건축의 터 잡기는 자연과 하나가 되고 자하는 天人合一의 정신과도 一脈相通하고 있다. 이런 풍수적인 요소 외에도 다양한 형태로 풍수를 적극적으로 터 잡기에 활용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으나, 그들은 풍수적인 이론을 바탕으로 선정하였다는 기록을 남기는 것에는 상당히 인색한 모습을 보인 점은 참으로 아쉽게 생각된다.

<참고문헌>

1. 이상해 글, 안장현 사진, 『書院』, 열화당, 1998
2. 최창조, 『좋은 땅이란 어디를 말하는가?』, 서해문집, 1990

3. 최창조 역주 『청오경·금낭경』, 奎章閣本, 민음사, 1993
4. 최창조, 『땅의 논리 인간의 논리』, 민음사, 1992
5. 李滉, 이장후 장세후 옮김, 『陶山雜詠』, 을유문화사, 2007
6. 徐有渠, 『林園經濟志』 「相宅志」, 保景文化社, 1983
7. 정순우 외 편, 『古文書集成』 「德川師友淵源錄」, 정신문화연구원, 1995
8. 楊筠松, 「靑囊輿旨」, 古今圖書集成術數叢刊, 北京 華齡出版社, 2009
9. 劉安, 안길환 편역, 「淮南子」, 명문당, 2001
10. 김두규, 『우리땅 우리풍수』, 동학사, 1998
11. 김지민, 『한국의 유교건축』, 도서출판 발언, 1993
12. 임석재, 『한국 전통건축과 동양사상』, 북하우스, 2005
13. 정경연, 『정통풍수지리』, 평단문화사, 2002
14. 胡舜申, 김두규 역, 『地理新法』, 古今圖書集成 堪輿部, 비봉출판사, 2004
15. 楊筠松, 남궁승 역, 『撼龍經』, 地理天機會元, 대훈닷컴, 2009
16. 徐善繼 徐善述, 「地理人子須知」, 古今圖書集成術數叢刊, 臺北 武陵出版社, 1971
17. 이상규, 『德川書院의 造營과 變遷에 關한 研究』, 성균관대학교 석사논문, 1998
18. 周世鵬, 安枉 譯, 『國譯 竹溪志』, 소수박물관, 2009
19. 董仲舒, 南基顯 譯, 『春秋繁露』, 자유문고, 2005
20. 김영식, 『주희의 자연철학』, 예문서원, 2005
21. 魯炳漢, 『古典 風水學 原論』, 안암문화사, 2006
22. 楊筠松, 김두규 역, 『감룡경·의룡경』, 榮

35) 김지민, 『한국의 유교건축』, 도서출판 발언, 58쪽, 1993

錫勳, 비봉출판사, 2009

23. 서유구, 안대회 엮어 옮김, 『산수 간에 집을 짓고』, 돌베개, 2006
24. 인터넷 사이트, 김두규 풍수이야기
(www.korea-fengshui.com)
25. 인터넷 사이트, 정통풍수지리학회
(www.poongsoojiri.co.kr)

접수(2010. 6. 4)

수정(1차: 2010. 7. 28, 2차: 2010. 8. 9,
3차: 2010. 8. 21)

게재확정(2010. 8. 24)

A Study on the characteristics of Fengshui with Jusan and Ansan in the Korean Academics of classical learning

Park, Jeong-Hae
(Doctor's course, Hanyang University)
Han, Dong-Soo
(Professor, Hanyang University)

Abstract

Through investigating the effects that result from the form and preference of Ahnsan(案山) and Jusan(主山) symbolizing ground in the cases of 21 of the Korean Academics for classical learning which called Seowon(書院) located in South Korea of the whole 47, to layout the Korean Academics for classical learning, what factor Sarim(士林) preferred to and how they analyzed the form of circumjacent mountains by Fengshui.

While the Jusan has intrinsic attribute due to connecting with the place, Hyuljang(穴場), the Ahnsan has public and extrovert. It can be explained that the Sarim who established the Korean Academics for classical learning had their internal hope and external justification. To put it concretely, because of their necessity of concentrating on their study within nature and their situation as hermits apart from government through long time, they made the Korean Academics for classical learning stable and satisfactory. Therefore, they had to choose Moogocksung(武曲星) as a Jusan. And their study was essential method to take their justification.

And It was attractive for them to be a public officer by their study. So they preferred to Moonpilbong(文筆峯) symbolizing their achievements on their study. So the layout of the Korean Academics for classical learning tells us that the Sarim sought internal stability and external scholarship.

Keywords : Korean Academics for classical learning, Seowon, Fengshui, Jusan, Ahnsan, Nine Stars(九星), Sarim, Moonpilbong
